

코로나 시대 이후의 선교 전략

이 현모 (침례신학대학교)

들어가는 말

코로나 시대에 선교의 관심은 변화와 속도인데 최근은 속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 선교의 새로운 시기의 도래 (?)

- 1) 제 1 기 - 지리적 장벽을 넘어섬
- 2) 제 2 기 - 문화적 장벽을 넘어섬
- 3) 제 3 기 - 언어 인종학적 장벽을 넘어섬
- 4) 제 4 기 - Total Mission

지리적 거리감과 문화적 장벽, 언어 인종학적 간격을 모두 넘어서는 선교
종교 대 종교, / 세대간 선교 / 난민을 통한 확산
복음의 총체성이 강조되는 접근 (Holistic Approach)

2. 오늘날 선교의 상황 변화

- 1) 복음의 확산 - 20 세기 후반부 부흥의 시기를 경험
- 2) Global South의 약진
- 3) 민족주의의 확산으로 전통적 선교의 한계와 압박
-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확산
- 5) 글로벌 분열의 시대

3. 상황적 변화가 선교에 미치는 영향

- 1) 선교사의 수적 증가는 정체 - 비전통적 선교사의 숫자는 증가
- 2) 선교사의 역할 변화가 요구된다.
- 3) 소수의 선교사가 최고의 효율을 올리는 스마트 선교

4. 선교사의 역할 변화

더 이상 부모의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최소 동역자, 더 나아가서는 후원자의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

선교사의 의미지 - 개척자, 선구자, 씨 뿌리는 자, Reckless Daredevils
동역자(Partners), Along-sider, Coach, C0-stockholder

현지 교단 중심의 협력 선교

5. 스마트 선교사 - 스마트 선교

Network 가운데서 모든 자원을 동원한 종합적 협동으로서의 선교 개념이다.
선교에서 전방과 후방의 개념이 없어지게 된다.

4차 산업 혁명은 선교사를 스마트 선교사로 변화시킬 기반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영역에서 선교사의 능력과 역할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다.